



光州日報

제1796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월 21일 (음력 12월 14일) 월요일



‘운송 차질’ 대불산단

“리모델링만이 살 길”

차로 1분 거리 화물 수송 땐 1시간

“전선은 실타래, 도로는 누더기, 다리는 흔들흔들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적 타 상행정 사례로 지적한 대불산단지 (대불산단) 내 ‘전봇대’로 인한 운송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단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지 적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대불산단에서 만난 선박 조립 용 블록운송업체 ‘대명특수’의 문승호 사장(37)은 “전봇대 몇 개를 뽑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가로수, 중앙 분리대, 송전탑 등 모든 시설이 블록 운송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특히 선박의 대형화로 1천t에 이르는 블록이 운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하중이 43t에 불과한 산단내 다리를 지날 때면 위험마저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또 “일반차량 통행용으로 조성된 도로들도 하루에만 수천대의 대형차량이 지나다니 보니 누더기 도로가 된 지 오래”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대형블록 운송업체 관계자

는 “승용차로는 불과 1분 거리에 있는 대불산단으로 대형 블록을 옮기기 위해서는 1시간이 걸리고 가로등과 전선 등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데 길게는 6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운송비의 부담도 3~4 배로 치솟는다”고 말했다.

공단 입주업체들도 “리모델링이 살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3년부터 대형 선박블록(폭 23m, 길이 29m)을 제작중인 유인숙(49) 유일 대표는 “중앙분리대 때문에 블록 운송시 역주행하는 일은 대단하고 커브를 뜯는 가로수가 블록 속으로 들어가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며 “선박의 대형화로 폭 28m의 대형 블록의 주문이 들어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만 된다면 연간 매출액(150억~200억원)도 10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단 재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은수 삼육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6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공장 앞 200m의 지중화 작업을 했는데도,

대불항까지 가는 길에 전봇대와 전선 등이 많아 이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비용으로만 100만~300만원이 소모되고 있다”며 “그동안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에 건의했는데 아직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밖에 현대삼호중공업과 목포신항, 용당항 등에 대해 45m 이상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도제한 조치 등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한편 대불산단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영암군은 지난 19일 대불산단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 현장 점검단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도로 정비와 교량 하중 보강 등을 골자로 한 사업비 2천616억 원 규모의 ‘대불국가산단 기반 시설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서종배 영암 부군수는 “대불산단이 조선클러스터 산단으로 거듭나면서 선박 블록 운송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며 “왕복 8차선 도로 개·보수, 왕복 4차선 확장 보수, 교량 17개소 보수 등에만 2천6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전봇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타 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대불산단내에 ‘전봇대’들. 전봇대 위 전선들이 그물망처럼 엉켜 있어 대형 선박 블록의 운송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혔다.

대불산단을 시찰한 진홍 산자부 지역 산업군협발전기획관은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에 대기업들이 하나씩 아이템을 갖고 옮겨 가면 해당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세계 관계자들과 만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왔고, 자자체와도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과 자체 유인책 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국토관리청과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광역자체에

이양, 대기업 이전과 관련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의 산업, 교통,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나아가 청와대에 ‘광역경

재권 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상설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가칭)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오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정책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준호 제각’ 광주 돌아온다

전통 문화공간 탈바꿈



지난 1997년 화순으로 옮겨진 후 빛없는 관리대책 없이 잡초 속에 방치〈본보 2007년 4월 17일자 1면〉돼온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 ‘현준호씨 제각’(사진)이 광주로 돌아와 전통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년 광주에서 화순 광주은행 연수원 부지로 이전된 현준호씨의 제각(撫松園·무송원)을 광주로 이전·복원, 국악 전수관과 전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무송원은 최초의 민족 은행인 호남은행 설립을 주도한 현준호씨(1950년 작고) 조상의 제각(祭閣) 겸 전통적인 한옥 주거공간이다. /윤영기자 penfoot@

社告

제22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5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이승철 교수 ‘아토피 피부염 치료·예방법’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5일(금) ‘제22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바로 알면 치료된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이승철 피부과 교수로, 아토피의 원인·증상·을 바른 피부관리법·정신적 치료문제 등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 내용은 오는 1월 29일(화)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주 제 : 바로 알면 치료된다. 아토피 피부염
- 강 사 : 이승철 전남대병원 피부과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 한국노화학회 회원
- 미국 피부연구학회 회원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일 시 : 1월 25일 (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광주일보·전남대병원

대기업 지방 이전 적극 추진

인수위, 획기적 규제 완화…정부 지원 대폭 늘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할 경우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지방발전 공약인 ‘광역경제권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드는

한편 시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전답기구 구성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4면〉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지방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달 하순까지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거 없애고,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 특별

경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사국가시험 연속 6년 100% 합격!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2008년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을 축하합니다!』

서남대학교 교육원·동문 일동



서남대학교

■ 서남대학교 본관

■ 서남대학교 남한강캠퍼스

■ 서남대학교 광복기념관·한국대학원 대학원 석사·박사과정